

주는 시각교재로 설명이나 글만으로 표현하기에는 복잡하고 긴 것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도표에는 점도표(point graph), 막대도표(bar graph), 원도표(pie graph), 절선도표(polygon graph), 도수분포도(histogram), 다각형도(polyanglegram), 입체도표(stereogram), 그림도표(pictograph) 등이 있다(그림 7-4). 도표는 상호관계나 경향, 변화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간단명료해야 한다.

2) 인쇄매체 제작

역사가 오래되어 교육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친숙한 인쇄매체는 인쇄된 정보를 자신의 속도로 읽고 소화할 수 있고 보관할 수 있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인쇄매체가 PDF(Portable Document Format)와 같은 디지털 인쇄물로 제작되고 있다. PDF에는 음성 파일을 삽입하여 재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PDF를 음성지원이 되는 형식으로 만들어주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PDF 내 글자를 음성으로 재생할 수 있어 시각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1) 팸플릿

팸플릿의 크기는 보통 13×20cm 정도로 제작하지만 요즘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진다. 팸플릿(pamphlet)의 제목은 대상자의 관심을 모으고 친밀감을 주도록 정한다(그림 7-5). 팸플릿은 책이 아니므로 주요 사항만을 전달하는 형식으로 제작한다. 분량은 20쪽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분량이 너무 많으면 내용을 세분화해서 교육내용별로 소구분하여 단계적으로 배포하여 교육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를 위한 팸플릿 시리즈로 당뇨병 판정 시의 초기 팸플릿, 당뇨병 환자의 식생활 팸플릿, 외식 가이드 팸플릿 등으로 만들어 제공하면 당뇨병 환자를 위한 가이드북이 만들어진다.

(2) 리플릿

리플릿(leaflet)은 보통 A4나 B4 크기의 종이 한 장을 한두 번 접어서 만든 것으로 펼쳤을 때 한 장이 되는 형태의 유인물이다(그림 7-6). 리플릿에는 긴 설명이나 많은 사진보다는 내용을 요약해서 꼭 알아야 할 5~6가지 주안점을 간단히 설명하여 요점을 전달한다. 대상자들은 분명하고 단순한 내용만을 기억하며 배열이 산뜻하지 않은 리플릿은 읽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한다.